



광남일보



‘수공예품 향연’ 빛고을랜드메이드페어 개최
22~24일 DJ센터...공예체험 등 부대행사 다채

6



순천만국가정원에 잔망루피 매력 더했다
9월 14일까지 ‘정원위케이션×잔망루피’ 콜라보

9



진도 조도 ‘광복절 체육대회’ 눈길
주민 주도 축제...1945년부터 매년 개최

10



‘헤이스 멀티골’ 광주FC, 6위 도약
전·후반 맹공으로 대전에 2-0 완승

12

조간 제790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음력 6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한민

“DJ 저항과 연대 정신 이어가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광주·전남서 추모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은 18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추모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정진백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 전 대표의 김대중 대통령 약력 보고, 강기정 시장과 양부남 국회의원의 추도사, 소프라노 장마리아 추모의 노래 등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15면
강기정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가르쳐 준 저항과 연대의 정신이 12·3계엄을 물리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가르쳐준 정보통신 기술(IT)을 통한 산업 발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보편 복지, 영호남 화합을 통한 지방 소외 극복을 인공지능(AI),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추모식 이후에는 창작연극 ‘지도자 김

대중’이 무대에 올랐다.

전남도는 이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에서 “대통령님은 도민에게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선 존재였다”며 “삶의 희망이자 자존심이었고,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전남도가 김대중 정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가겠다”며 ““지금은 전남 시대를 활짝 열어 도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6000억 규모 AI 2단계 ‘AX 실증밸리’ 국무회의 통과

광주 도시 곳곳에 인공지능 입힌다

내년부터 추진...시민 체험·공유 ‘모두의 AI’ 구현
에타 면제...5년간 융복합기업 1000곳 집적 목표

‘인공지능(AI)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광주시 AI 2단계 사업인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AI 2단계 사업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에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고, 하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

광주시는 AI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 융복합기업 1000개사의 집적을 목표로 한다.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이어 AI 2단계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에 인공지능을 입히는 사업이다.

시민 체감형 연구개발과 도시생활 전반을 바꾸는 도시생활형 과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모두의 AI 모델’ 구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총사업비 6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광주시 전라산업인 모델리타와 에

너지산업 AX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2단계 사업은 생산유발 9831억원, 부가가치유발 4942억원, 고용유발 6281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이 가운데 약 70% 이상 광주에서 창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획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은 모두의 AI와 도시·생활 혁신, 지역 전략산업 AX,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복지시설·공원·주차장 등 3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랩’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 실증 용도로 제공한다.

또 내년 시행되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연구개발(R&D)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

제 완화, 신속 행정, 세계 지원을 포함한 ‘AI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하며,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십 차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 설명과 협의를 해왔고,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강기정 시장은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한 4300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을 쌓고, 인재를 키워낸 프로젝트였다”며 “2단계 사업을 통해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기아 광주공장, EV5 양산 ‘초읽기’

29일 출고 기념행사 예정...첫 전용전기차 돌풍 기대

기아 오토랜드광주의 첫 전용전기차인 EV5 생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아는 오는 29일 광주 1공장에서 준중형급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더 기아 EV5(The Kia Ev5, 이하 EV5)’ 출고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EV5는 기아가 선보이는 다섯번째 전용 전기차로, 글로벌 수요가 높은 준중형 SUV 세그먼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모델이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그동안 EV5 생산라인과 핵심인 전용 배터리 장착 공정 라인을 구축하고 시험생산에 힘써왔다.

중국 연청공장에서 생산. 중국에서 먼저 선보인 EV5는 지난해 10만대 이상이 팔리며 중국시장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모델은 LFP 배터리가 아닌 LG에너지솔루션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를 탑재해 긴 주행 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력인자 2WD 기준 1회 충전으로 복합 460km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다.

기아 관계자는 “EV5는 전동화 기술의 혁신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며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넓은 공간감과 81.4kWh 용량의 삼원계(NCM)배터리 탑재를 통해 보다 넉넉한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본격 양산을 앞두고 EV5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열리 체크인’ 이벤트를 연다. 오는 24일까지 기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익스클루시브 프리뷰 초청 이벤트, 집으로 찾아가는 EV5 가격표와 카탈로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EV5 익스클루시브 프리뷰는 9월 6~7일 전국 15개 기아 거점에서 총 4500명을 초청해 진행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2025. 9. 15. - 9. 19. | 그랜드 하얏트 서울

W. gpaseoul.kr E. gpaseoul@wetheteam.net



개인정보보호위원회